

소통과 참여로

안전보건문화를 꽃피웁시다

노동자와 사업자 여러분, 그리고 안전보건인 여러분.

도전과 변화의 해 2025년이 밝았습니다. ‘푸른 뱀의 해’ 을사년(乙巳年)에도 일하는 사람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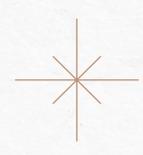
안전보건인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도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일터로 갔던 많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일터는 여전히 안전하지 못한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로드맵 등 새로운 법과 제도는 여전히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 노동시장 고령화, 안전보건 양극화, 정신건강 등 새로운 과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은 정부가 주도하는 자기규율 위험성평가가 시행 3년 차에 접어듭니다.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많고, 실시하더라도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도 2년 차에 접어듭니다. 인력도 없고 채용도 부족한 작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작업중지권 실효성 강화, 특수건강 진단·작업환경측정 제도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는 2025년에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보건문화 확산과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 그리고 현장으로부터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위험 요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좀 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에 가장 가깝고 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는 현장 노동자들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참여의 길도 열어줘야 합니다. 소통과 참여는 현장의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안전보건은 일하는 사람 모두가 누려야 하는 보편적 권리입니다. 안전보건의 사각지대는 없어야 합니다. 사업장이 작든 크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간에 일하는 사람 모두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업현장 곳곳에 들어와 있는 이주노동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노동자 등에 대한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안전보건의 '만형' 대한산업보건협회는 2025년에도 안전보건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체험형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과 분석의 과학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등에 역점을 두고 안전보건 관계자들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자, 사업주, 안전보건인 여러분.

지난 시기 우리는 술한 역경 속에서도 더디지만 곳곳하게 안전보건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슬기롭게 도전합니다. 건강과 행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백 현 기

